소식지 제 10 호
2012 년 5 월1일 발행
발행인 주교 가토 히로미치
편집인 사제 나카무라 쥰

함께 걷자! 프로젝트
일본성공회 동일본 대재해 피해자 지원

"아라하마 마도카"의 마유다마로 만든 부활 계란 발송 작업. 덕분에 품절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역 수확 돕기. 여러분들의 많은 자원 봉사자 지원 감사 드립니다. (이시노마키시 쥬산하마)

만남으로부터 넓어진 지원의 장
센다이권 베이스의 활동 2 (1 은 2 월 발행 7 호)

물자를 갖고 피해 신도 가정에
2011 년 3 월

홈 헬퍼 2 급 강좌
2012 년 3 월

일본어공부・시즈가와
2011 년 7 월 ~ 12 월

피해주택이사지원・이와키리
2011 년 5 월

가설집합소에서 오차모임・신지
정기적으로 계속 중

후쿠시마 어린이 프로젝트
정기적으로 계속 중

센다이권 베이스 설치전의 사건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사제 도미닉 이찬희 (도호쿠 교구)

시간의 흐름은 참으로 빠른 것 같습니다. 지난 1 년을 회상 해 보면 1 년이라는 시간
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느낄 수 없을 정도 입니다.

또 1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마 저에게 있어 2011 년 3 월 11 일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아니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평생 아프고, 아픈 기억으로 우리들의 마음 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1 년 전 발생한 대재해로 인해 우리의 이웃분들은 많은 아픔을 가슴에 안고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자신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보낸 아픔, 지금까지 가족과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었던 집, 동료와 함께 땀을 흘린 직장, 친구와 함께 공부했던 학교 등을 잃은 버린 아픔이 지금 도 우리의 이웃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함께 일본에서 생활을 하던 가족들이 한국에 귀국을 해야만 했던 아픔이 있습니다. 1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호진 (차남)은 지진의 공포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무서운 나라 '라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1 년 전, 대재해 발생 직후, 센다이 기독 교회는 신자 분들이 무사한지 확인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통신이 끊긴 곳이 많아 확인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두 명의 여성 신자분들이 자동차 휘발유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로 음식이나 물 등 생필품을 싣고 어딘가에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도시의 이름을 들어도 위치를 잘 모릅니다. 그냥 자전거로 갈 수 있는 가까운 마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많은 분들이 무리라고 해 결국 택시로 이동 했습니다. 물론 저도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택시에 물과 야채, 쌀 등을 가득 싣고 신자 분들의 가정 방문이 시작 되었습니다. "아니 이 마을을 자전거로! 정말 용감한 두 자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자매는 정말로 용감합니다 ....

신자 분들 가정을 방문하여 안부를 묻고,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필요한 물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은 한국어로 기도를 드렸지만, 그 이후 는 일본어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받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 대당 10 리터였던 주유가 어느 날, 가득 주유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에 휘발유를 가득 주유하고 그 날부터 제 자동차로 가정 을 방문하여 물과 음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1 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그날 의 봉사가 도호쿠 교구 * 나눔의 집 (지원 활동)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실 천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경험이 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조금이라 도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생각합니다.

지난 3 월 12 일, 한국의 전국 신문 "조선일보 "이찬희 사제의 활동이 "동일본 대지진 : 도호쿠에서 지원에 분주한 한국인 사제'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사진은 프로젝트가 제공. 신지 마을에서 촬영 지난해 6 월 무렵의 사진)

*** 편집자 주 '나눔의 집**
대한 성공회 사회 활동의 하나.

센다이시 내륙부 피해지의 지원

이와키리에서의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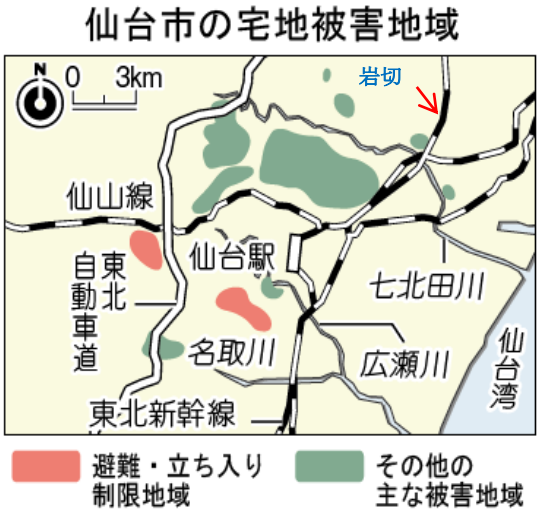
사제 프란시스 하세가와 키요즈미 (도호쿠교구)

2011 년 4 월 21 일 부활절을 아키타 성구주 교회에서 맞이하기 위해, 나는 도호쿠도를 오가스틴호 (프로젝트에 기증하거 나 임대한 차량에 애칭을 붙였다)으로 달리고 있었다. 도중 주차장에서 휴식 할 때 편의점에서 구입한 신문을 보았다. 그곳에 하나의 말이 마음에 꽂혔다. "우리는 행정으로부터 버려져 있습니다.

나는 굳어 버렸습니다. 그때까지 피해 지역 곳곳을 돌아다녔는데, 그 전 지역이 해일 피해 지역이었다. 버려진 분들은, 센다이시 내륙 미야기노구이었다. 쇼크였다.

센다이시 미야기노구 이와키리 피해입은 집

부활절 다음 주일, 센다이시 이즈미구 성베드로 전도소에서 성찬식 후에, 나는 그 장소를 방문했다. 일대는 파괴 대규모 반파라고 생각되어지는 가옥도 드문드문 있었다. 신문에서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임을 바로 알았다. 말을 걸었다. 부부와 첫 대면 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이것이 슈퍼하우를 제공하는 계기였다. 지금까지 이와키리 지역 8 곳에 조립식 7 동이 설치 되었다. 현재 각 가정들이 해체가 진행되는 올 봄, 시간은 걸리 지만 순차적으로 개축 예정이다. 한편, 건축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 괴로운 현실이다.



후쿠시마 어린이 프로젝트

스텝 이와모토 쇼타 (교토교구)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에 따라 많은 방사선이 방출되었다. 그러나 방사선 량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피난 지정 구역에는 들어가지 않고 도쿄 전 및 행정의 구체적인 지원이 없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후쿠시마 성 스데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있는 지역도 피난 지정 구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정상이 아닌 방사선양 때문에 밖에서 노는 것은 물론 외출도 삼가해야 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걷자! 프로젝트" 에서 이 교회의 신도분 한 가정, 그 친구와 센다이에서 밖에 놀이를 하는 단기 피난 프로그램 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도호쿠 교구의 시설들을 하루 이틀 동안에 그 계절에 맞는 바깥 놀이를 중심으로 힘껏 놀아 주고 있습니다. 평소 그다지 밖에서 놀 수 없는 아이들은 잔디밭에서 뒹굴고, 달리고, 정말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긴급적인 물적 지원이 아닌 모양 이 없는 지원은 앞으로의 삶의 시작에 대한 지원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해 입은 분들은 생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요구도 변해가기 때문에 임기응변으로 그 때 정말 중요한 지원을 앞으로도 계속 기대하고 있습니다.

센다이 스키장에서 눈놀이.

그외 센다이권 베니스의 활동

*나토리시*에서는, 쓰나니 피해가 컸던 유리아게에서 입주자가 많은 이 도시 내륙 하코즈카 사쿠라 가설 단지에 주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의 희망이 많아 "장보기 버스 투어'는 완전히 정착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중심 멤버입니다. 때때로 피해지인 유閑리아게, 어떤 때는 "스파 목욕탕"등도 돌아오는 길에 들리고 있습니다.

이와키리

후쿠시마현 신지마치, 미야기현 미나미 산리쿠 마을은 이미 특집에서도 알려습니다만, 최근의 움직임을 전하겠습니다.

*미나미산리쿠 시즈가와*에서는필리핀에서 시집 온 여성들이 홈 헬퍼 2 급 자격증을 따기 위해 먼저 일본어의 읽고 쓰기부터 열심히 했습니다. 그 강좌가 종료 드디어 병원에서 실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자격 취득은 문제 없습니다. 실습에 열심히 노력하는 엄마들을 위해 남자 직원이 육아를 맡고 있습니다. 흡족해하고 있습니다.

강좌에서의 실지연습

*신지마치*의 가설 주택도 정기적으로 "다과회"나 최근에는 '영화 모임'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설 주택에서도 합니다만, 고령자 분들이 칩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적어도 방에서 나가 즐길 수 있도록, 때로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분들의 봉사를 받고, 매직쇼와 마사지, 3 월말에는 만담회도 개최되었습니다. 활동 2 년째에 접어 새로운 과제도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기도 속에서 기억해 주십시오. (홍보)

『함께 걷자! 프로젝트』 사무국
【open】월~금 10:00~17:00 【close】토,일, 축일
〒980-0830 미야기현 센다이시 아오바구 고쿠분쵸 3-4-5 크라이스 빌딩 2층
TEL: 022-265-5221 FAX: 022-748-5321
E-mail : walk@nskk.org URL:http://www.nskk.org/walk/